

# 부상하는 메가아시아: 역사와 개념\*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아시아연구소 부소장

아시아가 제국주의 시기에 경험한 대상화된 수동성과 냉전 시기의 진영 논리에 의해 제약된 존재성을 넘어 세계사의 중심축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 유럽이라는 타자에 의해 부여된 명칭과 공간적 구획을 넘어서 아시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노력이 폭넓게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는 '메가아시아'로 이해될 수 있다. 메가아시아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가지역으로서의 아시아를 구축해 가는 동력으로 지구화와 지역화 및 지역주의의 동학이 빚어낸 신대륙주의와 신해양주의가 아시아 내 지역들을 연결해 가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상하고 있는 메가아시아 개념은 네트워크화된 지역으로서 아시아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이며, 동시에 미-중 경쟁이란 강대국관계가 규정하는 한계를 넘어 아시아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 아시아의 미래를 담아낼 전략적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아시아, 메가아시아, 메가지역, 네트워크화된 지역, 지역화, 지역주의

## I. 문제제기

아시아가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20세기 중·후반부터 제기된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가령, Chow and Chow, 1997)은 크게 빗나간 것 같지 않다. 표 1에서 보듯 세계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여러 면에서 무시할 수 없다. 세계 202개국 중 1/4이 아시아에 위치하며, 세계 영토 면적의 1/4을 차지한다. 하지만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인이며, 세계 명목GDP의 38%, 구매력 기준 GDP의 46%가 아시아에서 생산된다.<sup>1</sup>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임(NRF-2020S1A6A3A02065553). 이 글은 『아시아리뷰』를 위해 작성되는 과정에서 내용의 일부가 아이디어 페이퍼로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브리프』(1권 15호, 2021)에 발표된 바 있음.

표 1 세계 지역들의 통계

	국가 수		총 면적 (100만 km <sup>2</sup> )		총 인구 수 (100만 명)		명목 GDP (10억 USD)		PPP GDP (10억 USD)	
	합	비율 (%)	합	비율 (%)	합	비율 (%)	합	비율 (%)	합	비율 (%)
유럽	43	21	23,049.45	17	746.84	10	21,614	26	30,359	23
북미	23	11	22,524.26	17	583.05	8	24,981	30	26,833	20
남미	12	6%	17,706.25	13	426.91	6	1,634	2	6,488	5
오세아니아	18	9	8,489.57	6	41.50	1	1,646	2	1,601	1
아프리카	55	27	28,836.23	22	1,214.40	16	2,763	3	6,477	5
아시아	51	25	31,954.66	24	4,601.37	60	31,793	38	60,155	46
전체	202		132,560.42		7,614.06		84,431		131,913	

서 중국과 인도라는 세계 성장의 두 축 그리고 이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아시아의 국가들은 그 전체로서 이미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아시아는 너무 넓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분열적이고, 너무 큰 발전의 격차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로 포착하기에는 많은 난제가 있다. 혹자는 아시아를 “지리적 우연(geographical accident)”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Economist* 09/04/08). 이 거대하고 다양하고 분열적인 아시아를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정치체(polity)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Acharya, 2011; Sanjay, 2016).

그런데 ‘아시아’라는 용어를 둘러싼 개념사적 전개 과정을 검토해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대해 느꼈던 위협 인식의 요소와 결부되면서 유럽에서 확산된 이 ‘아시아’라는 용어는, 제국주의 시기 유럽에 의한 위협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에 대응하는 아시아인들의 유럽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시아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개념적 보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시아 내에서 확산되었다. 그리고 탈냉전 이후 다시 부상하는 아시아에

<sup>1</sup> 표 1 및 표 2는 유엔 및 세계은행 데이터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인구 수(2019년), 면적(2017년) 출처: UN Data(<https://data.un.org>)

GDP(2019년) 출처: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PPP GDP(2019년) 출처: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PP.CD>)

대한 서구의 위기의식과 아시아인들의 새로운 자의식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의 필요성이 다시 요청되는 과정 가운데, 아시아라는 용어는 복잡한 뉘앙스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전화되고 있다.

이 글은 특히 탈냉전 이후 지구질서의 변동 가운데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해 가는 질적인 변모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고 분석할 필요가 커가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같은 아시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아시아라는 용어의 기원과 전화 과정을 개념사적으로 검토하여 아시아 개념이 지니는 전체로서의 함의를 밝히고, 21세기 부상하는 아시아를 하나의 전체로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로서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으로서 메가아시아 개념이 지니는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아시아 개념의 과거와 현재

### 1. ‘오래된 아시아(Old Asia)’

잘 알려져 있듯이 아시아라는 명칭은 “오리엔탈리즘”적 기원을 가진다(Said, 1979). 그런데 유럽이라는 ‘주체’가 아시아라는 명칭으로 부른 이 ‘타자’에 대한 인식의 뉘앙스는 시기에 따라 변화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라는 용어의 기원은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보스포루스(Bosporus) 해협 너머 현재의 아나톨리아(Anatolia) 및 그 너머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을 지칭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현재 유럽 지역에 사는 사람들, 즉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 용어는 유럽의 동방에 위치한 영역을 부르는 기호로 일반화되었다.<sup>2</sup>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웠으며, 특히 이 용어는 강성하고 광대하며 많은 인

<sup>2</sup> 지역을 명명하는 행위의 폭력성과 아시아 명명의 유럽적 컨텍스트에 대해서 Aciri et al.(2019: 21-34) 참조.

구를 지닌 동방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협소하며 인구도 적은 유럽이 느끼는 위협감과 오랜 시간 결부되어 있었다(Saaler and Szpilman, 2011: 12).

아시아라는 용어가 현재 동아시아라 불리는 지역에 도달한 것은 긴 시간이 흐른 16세기경 제수이트(Jesuit) 선교사들에 의해서였으며, 17세기 초 마테오리치(Matteo Ricci)가 제작과정에 참여한 중국의 세계지도상에 “아세아(亞細亞)”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는 19세기 중반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이후 서구 세력을 아시아 공통의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의 아시아 연대 의식을 배경으로 확산되었으며, 결국 유럽의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탈과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신들의 공유된 역사, 밀접한 문화적 연계, 장구한 외교 관계, 교역 및 공동 운명 등과 같은 공통점을 통합적으로 묶어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Saaler and Szpilman, 2011: 13-14).<sup>3</sup> 지금도 그러하듯이 당시에도 광대하고 다양성 충만한 아시아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용어는 유럽의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확산되었으며, 이 과정이 아시아적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초기 아시아에서의 아시아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으로서의 아시아 전체를 묶어 보려는 이념이나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으며, 아시아는 그 용어의 기원상 전체로서의 내지 하나로서의 아시아를 의미하고 있었다 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의 ‘지역(region)’<sup>4</sup>이 되지는 못했다. 19세기를 통해 아시아는 서구의 시선에 의해 대상화된 수동적 객체로서 구획되고 조각나 제국주의적 침탈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일찍부터 역사 속에서 유럽과 조

<sup>3</sup> 가령, 안중근이 인종 연대에 기초한 동양 평화의 성취 필요성과 이를 위해 일본의 “탈아(脫亞)”를 비판하며 “입아(入亞)”에 입각한 역할을 강조했던 동양평화론 역시 유럽에 대한 아시아의 위협 인식에서 기반하고 있었다(손열, 2015: 54).

<sup>4</sup> 일반적으로 ‘지역(region)’이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자연적·인문적 현상들이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밀접하게 결합된 지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시간의 변화, 사회적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내 제반 현상들의 상호작용이 약화되고 유사성이 사라지면 지역은 해체 또는 분화되기도 한다. 반대로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긴밀한 상호작용의 증가로 여러 개의 지역이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되기도 한다. 지역 개념과 아시아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우하며 경쟁해 온 근·중동,<sup>5</sup> 세계를 제패한 영국을 위시한 유럽 세력들이 구축한 해양 네트워크와 식민 제국주의에 의해 일찌감치 포획된 해양아시아,<sup>6</sup> 그리고 대륙 세력 러시아와 해양 패권국 영국이 벌인 각축에 청(靑)이 연루된 ‘거대게임(Great Game)’이라는 충돌 과정에서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중부아시아(Middle Asia)<sup>7</sup> 등 아시아는 강대국의 세력팽창과 각축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분할되었다. 유럽(특히 서유럽)이 아시아를 지배한 기간은, 아시아의 장구한 역사에서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서유럽에서 기원한 근대 국제질서 및 생활양식의 확산에 의한 아시아의 다양한 ‘전통’이 변혁되는 과정은 질적으로 밀도 높은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음에 분명하다. 이후 양차 세계대전을 지내며 아시아에서는 많은 신생 독립국이 등장하였지만, 지역으로서 하나 내지 전체로서 아시아의 의미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 냉전시기 미-소 대립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시아 제국(諸國)은 진영 논리에 따라 줄서기를 하거나 비동맹의 깃발 아래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리멸렬하는 가운데 아시아를 하나로 인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 2. ‘새로운 아시아(New Asia)’

탈냉전 이후 세계 질서의 변동은 주권적 국민국가 중심의 체제를 넘어선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새로운 변화의 동인을 강화하였고,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쳤

<sup>5</sup> 이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영국 학계는 오리엔트(Orient)를 사용하였지만, 차차 유럽과의 지리적 거리에 따라 근동(Near East), 중동(Middle East), 극동(Far East)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동방, 근동, 중동, 서(남)아시아 등으로의 지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Culcasi(2010) 참조.

<sup>6</sup> 이 범주에 속하는 지역으로는, 요즈음 명칭으로 불러 보자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해당될 것이다.

<sup>7</sup> 해양 세력으로 세계적 패권을 구축해 나간 영국은 대륙에서 팽창하던 러시아의 해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유럽 방면에서는 크림전쟁, 중앙유라시아 방면에서는 아프간 충돌, 그리고 동아시아 방면에서는 거문도 점령사건과 같은 대립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였다. 특히 인도와 아프간 지방을 두고 벌어진 충돌을 ‘거대게임(Great Game)’이라 부르며, 이 거대게임의 여파로 실크로드 문명의 핵심적 역할을 감당해 온 중부유라시아의 제국 중가르가 동서로 분열되어 각각 청과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하여 사라진다. 거대게임 및 신거대게임에 대한 연구로는 Friere and Kanet(2010), Sergeev(2013) 등을 참조.

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하고 정의하기 위한 담론과 “아시아의 세기”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sup>8</sup>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한 ‘자연경제구역(Natural Economic Territory)’<sup>9</sup>과 같은 역사적 상호작용의 패턴을 복원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주의적 노력이 강화되었다. 이런 과정은 아시아에 대한 사고(思考)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주-객의 관계로 보는 시각을 점차 변화시켜 갔다 (Nandy, 1998; Korhonen, 2002: 104-106).

이런 아시아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따른 서구적 인식의 변화로부터 촉발되었다. 특히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근대화의 성공신화는 유럽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빠르게 변화시켰다(Frank, 1998; 임현진, 2016: 17-21). 오래된 아시아는 주체적 근대화를 이룰 수 없는 어떤 존재였다면, 새로운 아시아는 그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어쩌면 넘어서 수도 있는 존재로 상상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새로운 아시아의 세기에 대한 담론은 아시아의 부상에 대한 서구의 경이와 우려가 복잡하게 얽힌 반응의 일환으로 확산되었다(김경동, 2011: 46-48).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켜 갔으며, 범(凡)아시아적 사고를 확대해 갔다(Duara, 2002: 63-101; Frey and Spakowski, 2016; Subrahmanyam, 2016). 하지만 아시아인들에게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보충물이 필요했다. 이는 유럽의 선진적인 근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회적 관계 및 제도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문화적 유산의 등가물을 다양한 경로의 “아시아적 발전모델”(Berger and Hsiao, 1988; Eisenstadt, 1998)과 그것의 기저에 놓인 “아시아적 전통이나 가치”(Fukuyama, 1998; Bell and Hahm, 2003)에서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시아 국가들의 개별적 이슈로 취급되어 왔을 뿐,

<sup>8</sup> 1988년 덩샤오핑이 라지브 간디 수상과 만난 자리에서 진정한 아시아의 세기의 도래는 선진국 일본과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발전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아시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주변국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Subrahmanyam, 2016: 5-6). 하지만 탈냉전 이후 상황은 급변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인도와 중국은 빠른 경제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이 두 나라와 더불어 아시아 전체는 세계경제의 주요 축으로 부상하였다.

<sup>9</sup> ‘자연경제지역(Natural Economic Regions)’ 내지 ‘자연경제구역(Natural Economic Territories)’에 관한 논의로는 Dryer(1915)와 Scalapino(1995)의 논의를 참조.

아시아를 하나로 상상하는 원천이 되지는 못했다. 사실 기존 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교류사나 개별 국가사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지역사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거의 없다. 그나마 개별 국가사 연구도 서구와의 관계사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아시아의 자기 인식의 현실에 대한 반성은 이후 다양한 학술적 시도로 표출되었다.<sup>10</sup> 이 같은 노력의 대표적인 예로 대만의 첸관싱(Chen Kuan-Hsing, 2010) 등이 주장하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Asia as Method)”에 대한 연구는 “탈제국주의, 탈식민주의, 탈냉전”의 과제를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결국 냉전 시기 강화된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전간기(戰間期) 일본 지식인 다케우치 요시미(Takeuchi Yoshimi)의 아시아적 가치나 연대에 의존하는 ‘범아시아주의’ 담론을 다시 소환하려는 시도에 다름없어 보인다(Subrahmanyam, 2016: 7). 이러한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탈냉전 이후 30년여 간 지구화와 지역화가 빚어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범아시아주의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포착하는 데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 새로운 아시아를 연구할 수 있는 변화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지구화(globalization)’가 추동해 온 변화의 유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화의 신화가 무너지면서 ‘지정학의 귀환’과 같은 새로운 지구적 변환이 진행되고 있는 양면적 상황 속에서도 아시아가 빠른 속도로 상호 연결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배태되었다. 애그뉴(Agnew, 1994)와 브렌너(Brenner, 2004)가 적절히 지적하였던 “영토적 함정(territorial trap)”이나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를 넘어, 지구사 속에서 아시아를 재규정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지구화는 지역의 특수성을 전제한 전(全) 지구적 통합이란 의미에서 세방화(glocalization)에 다름 아니다(조지형 외, 2010: 51). 동시에 다양한 층위에서 강화되고 있는 ‘지역주의’ 컨텍스트 속에서 아시아를 자리매김할 필요성은 더욱 커 가고 있다.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주의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아시아가 더 이상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는 파편화

<sup>10</sup> 특히 아시아 지역사를 ‘연결’과 ‘네트워크’의 관점 및 교류사 및 지구사의 맥락에서 해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노력들로는 Milner and Johnson(1997), Abalakin(2011), Lieberman(2003, 2009), Singh and Dhar(2014) 등을 참조.

된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초국경 소지역들이 지역주의적 협력을 시도·성취해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Chen, 2005).

특히 고무적인 점은 아시아인들이 아시아를 정의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으며(Duara, 2010; Stotle and Fischer-Tine, 2012), 그동안 축적해 온 아시아 근대화의 경험을 “하나의 아시아(One Asia)”를 상상하는 기반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장경섭(2014)은 이를 ‘세계화로서의 아시아의 아시아화’ 현상으로 주목하면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상호관계와 역사적·거시적 맥락에서의 공통성이 부각되고 있는 흐름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정치·군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문화적 차원의 유기적 통합을 촉진하면서 유럽에 견줄 수 있는 아시아가 형성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아시아에서도 하나의 아시아를 구성해 가는 내적 동력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중국이나 인도 등 거대 제국의 귀환으로 상상되는 복고적 시각을 넘어 역사적 실체이자 미래지향적 과제로서 ‘새로운 아시아’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시아적 시각이 이제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에서 그랬듯이(Wilson and Dussend, 1995; Delanty, 1995), 이제 아시아인들에 의한 “새로운 아시아(New Asia)”의 ‘발명(invention)’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 III. 미래를 향한 아시아 개념

#### 1. 새로운 아시아 정의(定義)의 필요성

최근 들어 ‘아시아’를 메가지역(mega-region)<sup>11</sup>으로 포지셔닝하는 담론적 실천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메가지역으로서의 아시아의 부상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교류와 담론적 실천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세계의 공

<sup>11</sup> 메가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역주의적 논의로는 유라시아주의, 대서양주의, 범유럽주의, 유라프리카(Eurafrica)주의 등과 같이 다양한 범위와 지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해서는 신중훈(2018), 김유정(2019), Laruelle(2008), Hansen and Jonsson(2016), Muller(2016), Chernyshev(2017) 등 참조.



장이면서 세계의 소비지로서의 아시아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2020년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 위기는 세계경제위기로 비화되면서 중국은 그 이전과는 차별화된 존재로 주목받게 되었다. ‘중국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가’(Elliot, 2009)라는 질문과 함께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결국 “G2” 시대의 도래가 선언되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아시아의 상승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유익한 결과에 대한 기대도 함께 피력되었다(Mahbubani, 2008).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의해 채색되어진 아시아 미래에 대한 전망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국의 부상이 필연적으로 수반할 미국과의 경쟁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Hardy, 2020). 현재의 아시아는 미-중 전략 경쟁이 고조되면서 그 주된 경쟁지로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해 어느 일방의 압도적 우위 또는 양자 간의 타협과 같은 결론이 나기까지 일정한/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 양측이 세력을 결집하려는 자기편 모으기 게임은 현재 고양되고 있는 아시아의 연결성(connectivity)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설혹 아시아에서 미국의 일정한 후퇴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중국중심성”에 의해 규정될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미국은 물론 아시아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예를 들어, Ikenberry, 2008; Chung, 2016; 이병한, 2016). 첩관성이 언급한 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가 지향하는 탈제국주의, 탈식민주의, 탈냉전의 21세기적 전략은 결국 서구, 특히 미국의 영향력을 아시아로부터 덜어내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만약 그것이 성공적이 될 때에 미국의 축소 내지 후퇴에 따른 빈자리를 메우게 될 강대국으로는 당연히 중국이 꼽힌다. 하지만 중국이 중심이 된 아시아의 미래<sup>12</sup>는 또 다른 의미에서 분열적인

<sup>12</sup> 페어뱅크(Fairbank, 1968)가 소개한 방식의 천하질서(天下秩序)에 대한 연구는 최근 중국학자들에 의하여 한층 더 적극적 의미를 띤 패도론(霸道論)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웬쉐통은 2013년 자신의 저서 『歷史的 慣性』에서 중국의 GDP가 2023년에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미-중 양강 체제의 정착을 예견하기도 했다. 적극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중국이 중심이 된 신천하질서의 형성 가능성에 대한 예측들도 제기되었다. 천하질서와 조공체계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 질서에 대해서는 Kang(2010, 2020), Perdue(2015), Park(2017) 등의 논의 참조.

표 2 아시아 지역들의 통계

	국가 수		총 면적 (100만 km <sup>2</sup> )		총 인구 수 (100만 명)		명목 GDP (10억 USD)		PPP GDP (10억 USD)	
	합	비율 (%)	합	비율 (%)	합	비율 (%)	합	비율 (%)	합	비율 (%)
동북아시아	6	12	11,800.03	37	1,672.61	36	21,022	66	31,085	52
중국*	1	2	9600.00	30	1,433.78	31	14,280	45	23,488	39
동남아시아	11	22	4,501.16	14	662.01	14	3,175	10	8,479	14
남아시아	9	18	6,764.03	21	1,918.21	42	4,046	13	13,005	22
중앙아시아	5	10	4,004.52	13	73.21	2	297	1	912	2
서아시아	18	37	4,884.93	15	275.32	6	3,253	10	6,673	11
전체	49		31,954.66		4,601.37		31,793		60,154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시아를 분열시키고 고립시켰던 기존 서구의 전략으로부터 탈피와 극복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표 2에서 보듯이, 아시아 내 압도적 영향력을 지닌 중국 일방주의에 기초한 아시아 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수 있는 분열과 위협에 대비하고 아시아 보편의 공영(共榮) 전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지구적 세력구도를 이해하는 틀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기존에 유럽, 북미, 동아시아라는 세계 경제의 3대 축(軸)을 중심으로 지구적 세력 배분을 논의하던 시각은 최근 축 사이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으로 대체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네트워크적 사고의 출현으로부터 기인한 바가 크다. “장소의 공간(space of places)”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던 인간 활동에 대한 인식은 이제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을 중심으로 연결과 이동 및 흐름의 틀 속에서 파악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이해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Castells, 1996). 이른바 네트워크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미시적 인간 활동에 대한 시선을 거시적으로 확대하여 축과 축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미 축과 유럽 축을 연결하는 대서양 연대는 이미 그 역사가 오래며 안정적이다.<sup>13</sup> 하지만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은 나머지 두 연결 링크

<sup>13</sup> 이와 관련하여 지구사를 각각 해양 및 대륙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대서양주의(Atlanticism)’와 ‘유라시아주의(Eurasianism)’ 간의 오래된 논쟁은 21세기에 들어 불거지고 있는 유라시아주의와

이다. 미국과 일본이 진력하는 북미 축과 동아시아 축의 연결 노력은 아·태경제 협력체(APEC)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등의 제도를 구축하는 노력으로 표출되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려는 전략적 노력은 대(大)유라시아주의 구상이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구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 두 흐름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미·중 간 전략경쟁의 고조는 이 두 흐름을 상호 경쟁적이며 배타적인 관계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견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전략에 대한 견제의 성격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구상의 확장된 버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강대국 중심의 구상과 각 축에 대하여 아시아의 각국들은 개별 국가의 이익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각 지역들이 지닌 구도에 따라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이 과정에 대해 관망세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런 ‘신대륙주의’와 ‘신해양주의’의 동학이 만들어 낸 아시아의 미래와 관련하여 이를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배타적인 흐름으로 규정하거나 그에 편승하려는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거나 그 해안을 따라 장기간 작동해 왔던 다양한 교류의 네트워크는 특정 제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된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역사 속에서 제국은 교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확장시키기도 했지만, 파괴하기도 했다. 도리어 전체로서의 연결과 흐름의 네트워크는 상호보완적인 지방과 도시의 근접성과 상호보완적 교류의 압력이 엮어 낸 링크들의 구성물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내의 신대륙주의적 연대 및 교류 통로의 구축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특정 강대국의 정책적 노력만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과 지방들의 노력에 의해서도 구성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Cooley, 2012). 메가지역으로서 아시아의 부상은 강대국 중심의 기획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지방과 도시들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개념화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서 점점 더 아시아의 메가

인도·태평양주의 간의 논쟁으로 그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유라시아주의와 대서양주의의 논쟁에 대해서는 김명섭(1997), 신범식(2001) 등을 참조.

지역으로서의 의미가 강화되어 가고 있다.

아시아 해양에서의 교류는 이미 잘 짜인 해상운송네트워크를 따라 원활히 작동되어 왔으며,<sup>14</sup> 이 해상 교류의 길은 유럽 제국주의 팽창의 주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지경학적 네트워크로 작동해 온 해상운송네트워크의 틀 위에 최근 안보적 의미를 강화하려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역적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신해양주의는 대륙과 해양의 연결을 위한 새로운 접합점들이 개발되고 연결되는 과정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서 축의 연결 못지않게 남-북 축의 연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아시아의 대륙과 해양을 관통하는 동-서 기간(基幹) 축선에 대한 제국의 영향력은 그 분절적 링크의 존재와 기능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새롭게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남-북 소축선에 대한 관리는 아시아 지역의 통합과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흐름과 연결과 네트워크라는 관계적 접근법의 부상은 아시아를 연결된 하나의 전체로 이해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sup>15</sup>

이런 필요와 관련하여 필자는 변화하는 아시아 안팎의 상황 속에서 아시아 내의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틀로서 아시아를 메가 지역으로 조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거대지역으로서의 새로운 아시아는 상이하면서도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여럿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를 권역 단위라는 ‘부분’ 또는 그 합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넘어 ‘메가아시아(Mega-Asia)’, 즉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개념적이며 현상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sup>14</sup> 해양아시아의 네트워크에 대한 개괄적 연구로 모모키시로(2012)와 권오영(2019)을 참조.

<sup>15</sup> 이처럼 아시아를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하고 그 특성을 네트워크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시론으로 손정렬 외(2018)의 연구를 참조해 볼 것.

## 2.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메가아시아는 아시아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들(regions)이 신대륙주의나 신헤양주의와 같은 지구적 및 지역적 동학을 통하여 상호 연결됨으로써 구성되는 거대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라고 정의될 수 있다. 두아라(Prasenjit Duara)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의 예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 아시아는 네트워크 지역이었음을 강조한다(두아라, 2016: 19-20). 대륙 유라시아의 실크로드나 해양 아시아의 무역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된 거대한 네트워크로서의 이 메가지역은 역사 속에서 제국에 의해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파괴되기도 했다.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연결들은 “네트워크화 된 지역(networked region)”을 구성해 왔으며, 네트워크화된 지역은 제국의 힘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지역들의 연결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혹자는 메가아시아는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직 상상의 단계 또는 담론의 수준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층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된 아시아의 이 거대한 구조는 통합된 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는 아시아의 메가지역으로서 이미 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메가지역으로서 아시아는 몇 개의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서구와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 의해 구획되어진 아시아의 대표적 지역들로는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라는 용어가 정착되어 있으며, 이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는 담론적 실천이 축적되고 있다. 서방 세력의 상업적이며 전략적인 이해에 따라 구획되어진 “아시아들(Asias)”은 수동태로 시작되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를 재규정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탈냉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서로를 연결하면서 새로운 아시아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19~20세기에 아시아를 서구에 대한 대칭적 개념으로 설정하여 타자, 객체, 타 지역 등을 대상화하고 설명해 온 인식들은 그 관찰자의 시선(perspective)에 내재한 주-객의 관계를 상정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규정하는 아시아인들의 인식이 성장하면서 그러한 주-객의 구분 및 그 관계 맺기의 양식은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아시아인들은 서구적 개념으로서의 ‘지역’과 그 명칭을 수용하였지만, 이제 **주체적으로** 그것을 새롭게 규정하기 시작했다. 최근 아시아 여러 지역들의 변화는 ‘아시아들’이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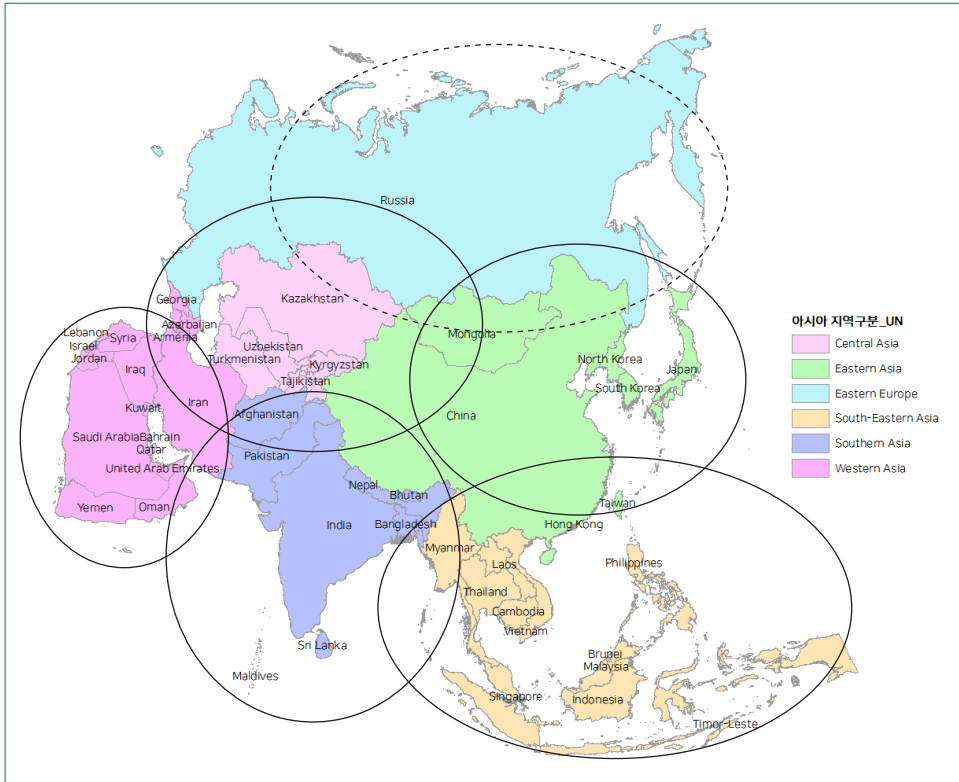


그림 1 아시아의 지역들

나의 지역으로서의 지역격(regionhood)을 획득하는 수준을 넘어 그 지역성(regionness)을 고도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의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세안(ASEAN)을 통한 지역형성의 경험을 발전시키고 축적해 온 ‘지역주의(regionalism)’의 경험이 있다. 사실 아세안은 말만 무성하고 제도적으로는 결실이 없는 “담화장(talking shop)”이라는 비난을 오랫동안 받았다. 하지만 비난의 대상이었던 “아세안 방식(ASEAN way)”<sup>16</sup>에 입각한 역내 국가들의 상호작용은 긴 시간을 통

<sup>16</sup> 아세안 방식과 아세안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Acharya(2007), Cockerham(2010), Yukawa (2018) 등을 참조.

하여 동남아시아의 지역주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는 아시아에서 지역을 형성해 가는 담론적 실천 및 소통의 방식이 유럽의 그것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하여 잘 말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경험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통합 경험에 머물지 않고 있다. 오래전 아시아에서 자연스럽게 그랬듯이 동남아시아는 동북아시아와 연결되고 있다. “아세안+3”과 같은 대화들은 지역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웠던 동북아시아의 주요 3국(한, 중, 일)이 지역주의적 모델임을 아웃소싱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는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출범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동아시아 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구상들은 상호 경쟁하면서 새로운 지역주의의 기틀을 형성해 가고 있다(Yeo, 2019).

그뿐이 아니다. 동남아시아는 남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까지 연결되고 있다. 사실 미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를 추진하기 전까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았다. 가령, 반동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합의 일환으로 열린 동남아시아 총리회의에 인도, 파키스탄, 버마, 인도네시아의 총리가 함께 모인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아시아 내의 다른 지역이라는 데 대해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는 미얀마를 고리로 남아시아와의 연결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아세안고속도로(Asian Highway, AH), 범아시아 철도망(Trans-Asian Railway, TAR), 복합운송체계(Multi-modal Transportation System, MTS) 등의 인프라를 통해 아시아 내 다른 지역들과 연결되고 있다. 게다가 아세안-인도대화나 아세안-러시아 대화를 비롯하여 아세안-유럽연합 대화 등을 통해 간 지역주의와 초지역주의적 연계를 미래를 향해 강화해 가고 있다(ADB,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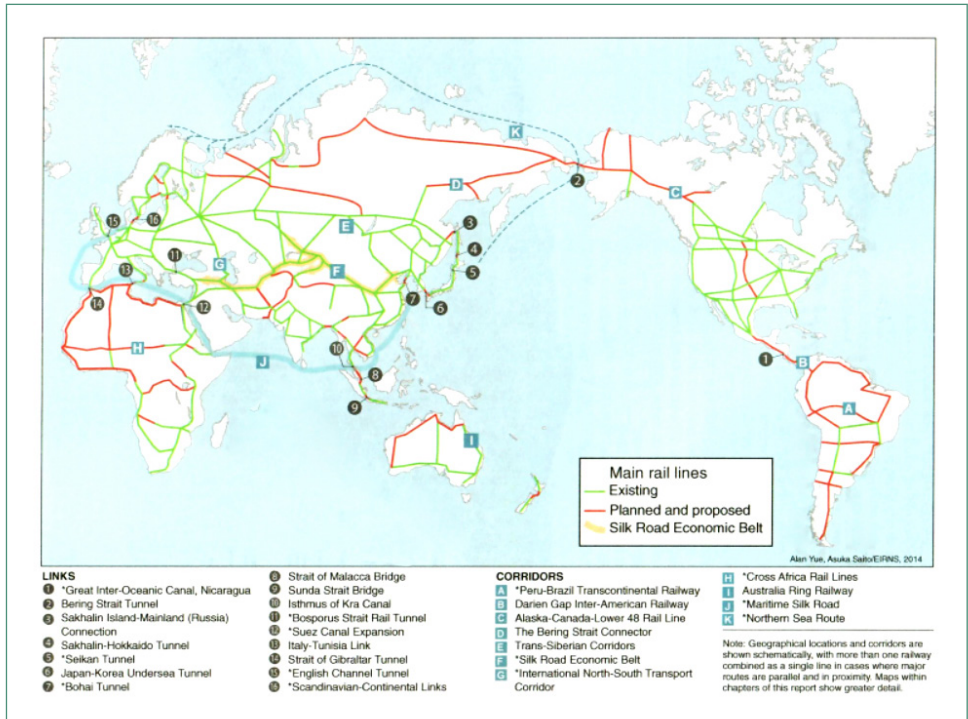
이런 간지역주의적 시도와 성과는 동남아시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흐름은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연결을 위한 노력으로도 관찰된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지전략적 위상은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linchpin)의 역할을 하는 데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것이 메가아시아 구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중국횡단철도(TCR) 경제회랑의 구축은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축이며, 남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과 개발을 목표로 중앙아시아와 남아

시아를 연결하려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중앙아시아+N’ 형식의 다양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초지역적 연계를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의 지역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구축되는 메가아시아가 현실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런 간지역적(inter-regional) 내지 초지역적(trans-regional) 동학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시아의 지역들은 아시아 내에서만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아시아의 지역들은 그림 2에서 보이듯이 다양한 링크들을 통하여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메가아시아의 작동과 변화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가아시아를 구성하는 아시아들에 대한 이해들 못지않게 메가아시아가 세계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간지역주의 및 초지역주의적 동력 뿐만 아니라 지구화를 추동하는 다양한 가치사슬의 형성과 변용 그리고 지구적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동과 흐름 동학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주나 유럽으로부터 투사되는 힘과 협력의 동력이 어떻게 아시아의 지역들에 영향을 미치며, 메가아시아의 동학이 아프리카나 대양주로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메가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다. 아직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아시아(North Asia)에 대한 이해다. 그림 1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존 UN 구분에 따르면 동유럽에 해당되는 러시아의 영토다. 하지만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장덕준, 2014; Park et al., 2020)을 통하여 러시아 극동 지방을 아시아의 일부로 편입시키기 위해 진력 중이며, 이러한 노력은 최근 들어 러시아의 대유라시아(Greater Eurasia) 정체성을 강조하는 인식과 접목되면서, 일부에서는 2018년 발다이클럽 보고서 이후 “러시아의 아시아화(Asianization of Russia)”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Khanna, 2019: 81-91). 더구나 북극항로의 상용화가 진행되면서 이것이 지구적 물류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메가아시아의 동학을 한층 강화해 나갈 동학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이칼 이동(以東)의 러시아와 북극 지역에서 변화는 메가아시아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변화를 메가아시아의 틀 속에서 포착해 내기 위해서 이 지역을 ‘북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으로 포착해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명명(naming)하는 행위가 지니는 한계에





출처: EIR Special Report(2014): I-21.

그림 2 세계 랜드브릿지 네트워크(주요 링크와 회랑들)

도 불구하고, 비록 “북아시아”가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개념은 메가아시아의 구성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를 이해하며 향후 그 구조적 변화를 상상하는 데에도 대단히 유용한 개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아시아 내 다양한 지역들이 신대륙주의 및 신해양주의와 같은 지구적·지역적 동학으로 서로 연결되어 구축되어지는 네트워크로서의 메가아시아는 내적으로 아시아들의 연결과 외적으로 지구 내 다른 지역들과의 연결이 서로 어우러지는 지구적 플랫폼으로 이미 형성되고 있으며, 메가아시아의 통합 내지 분열 등의 변동은 지구정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IV. 메가아시아 지역의 현재와 미래

앞서 잠시 보았듯이 지역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지역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와 주제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지역의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개념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 상이하게 내지 자의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가장 단순하게 고전적 지리학에서는 지역을 “지리적 인접성을 특징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지리적 실체(entity)로 정의한다. 지역은 하나의 국가일 수도 있고, 동일한 문화 지역일 수도 있으며, 생태단위일 혹은 이러한 것들의 각 부분적 구획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은 유사한 생산구조, 문화구조, 사회구조를 갖는 공동체의 집합으로서 영역 내 거주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와 관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구현되는 하나의 집합적 공동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초국가적 ‘지역’을 정의하는 두 상이한 시각은 의미심장한 대립점을 노정한다. ‘본질주의적 시각(essentialist perspective)’에서는 지역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 내용, 배타성, 물적 조건 등이 중요하며, ‘구성주의적 시각(constructivist perspective)’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권력 관계, 갈등과 투쟁의 과정, 사회적 구성, 담론적 실천 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같은 차이점을 대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견지에서 지역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①공간(물적/비물적)과 권력(지배와 관계), ②의미(해석과 지표)와 담론(형식과 지칭), ③경험(실천과 공유)과 제도가 지역 형성과정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간과 권력관계, 의미연관과 담론적 실천 그리고 경험과 제도와 같은 지역형성의 재료들은 공간을 구성하는 장소(place)-영토(territory)-네트워크(network)-스케일(scale) 등과 같은 다양한 원리들(Jessop et al., 2008)과 결합하여 ‘사회적 장’으로서의 지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sup>17</sup>

정리해 보면, ‘지역’은 소속감, 동질성 및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역사적

<sup>17</sup> 본고에서 지역의 형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지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고의 논지 전개에 필요한 중요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지역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는 Paasi et al.(2018)을, 국가성 이론에 입각한 지역의 형성과 제도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Langenhove(2011: 특히 63-96)을 참조.

과정과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s)을 통하여 형성된 공동체(community) 혹은 정치체(polity)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형성 과정은 크게 “담론적 실천”에 의해 명칭이 확산·공유되는 과정과 더불어 그것을 구성해 나가는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제도화”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지역이 하나의 단위로서 지니게 되는 제도적 응결성을 지역성(regionness)이라 부르는데, 아시아의 지역성은 유럽의 그것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고 이해되곤 한다. 하지만 아시아가 유럽과 같은 수준의 지역성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역격(regionhood)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식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대표적인 근대적 영역으로서 ‘국민국가(Nation-State)’도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조합된 구성체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장 고도화된 지역성으로서의 영토성(territoriality)을 구축한 지역의 한 종류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토(territory)라는 현상은 국가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다양한 지역성의 단계에 따른 영토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지역’은 훨씬 유연하게 다층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세계 구성의 단위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 분석적 유용성을 더욱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제습 등(Jessop et al., 2008)의 영토-장소-공간-네트워크(T-P-S-N) 모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역을 구성하는 원리의 다양성에서 출발하면 네트워크화된 지역의 구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 구성 원리의 다양성에 입각하여 지역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여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초지역적 스케일의 관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이해하려는 노력(Sum, 2018)은 이러한 확장된 지역 또는 메가지역 개념에 대한 논의와 맞물리면서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이 같은 지역에 대한 이해는 21세기적 세계의 변화와 그 구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하기 위하여 다층성, 연계성, 이동성을 고려한 탈영토화(de-bordering) 및 재영토화(re-bordering) 과정을 포괄하는 지역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방법론을 개발해 나갈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세계 구성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의 지역연구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이 세계를 구성하는 단위가 될 수 있다면, 지역연구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의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를 구성하는 단위로서 지역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 해석(translate)을 통하

여 세계를 인식하는 수단으로서 지역연구의 체계성을 강화하여 그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메가아시아는 지역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네트워크화된 지역의 유형에 속하며, 이는 분석적 개념으로서의 지역으로 잘 포착될 수 있다. 메가아시아에 대한 담론의 기원은 아시아주의(Asianism) 내지 범아시아주의(Pan-Asianism)에 대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의 개념 자체가 서구로부터 유입되어 아시아에 확산되었으며, 19세기 중반 서구 열강의 침탈과정에 놓인 공동운명체로서의 아시아라는 정체성이 일찍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식과 담론의 실천 수준에서 아시아의 지역격화(regionification)는 19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역사적이며 지리적 실체로서 아시아에 대한 비전은 크게 유럽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다양성의 틀을 넘어서는 개념적 틀로서 자리잡아가게 되었다(Frey and Spakowski, 2016: 3-5). 물론 이러한 정체성이 이후 연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아니지만, 이는 아시아인들의 의식 속에 느슨한 연대감으로 유지되었다. 아시아가 하나의 의식은 유럽과의 관계에 대한 대칭적 및 비대칭적 인식에서 나타나는 특정 구도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담론적 실천의 수준에서 획득된 아시아의 지역격(regionhood)이 제도적 수준의 고도화로 연결되기에는 다른 객관적 조건의 성숙이 필요했다.

메가아시아의 지역성 강화와 관련하여 그 본격적 창발은 1980년대 아시아의 경제적 부상 과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지구적 자본주의의 본격적 확산은 1970년대 급격한 세계무역의 성장을 가져왔고,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1980년대에는 “동아시아의 기적”과 같은 성과로 결실되었다. “동아시아 네 마리 용”의 성공 신화는 글로벌한 생산네트워크의 구조하

<sup>18</sup> 아시아주의란 아시아의 담론적 구성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정치적·문화적·사회적 실천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아시아의 역사적 기원과 전통 그리고 정치·문화적 통합을 비전들을 탐구해 나가면서, 아시아주의는 다양한 아시아 내 지역들과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과 공유관심에 초점을 맞춘 모든 개념들, 상상들, 과정들을 담아내는 개념적 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주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의 틀이면서 동시에 실천을 위한 동력의 틀이 될 수 있다(Frey and Spakowski, 2016: 1-2). 이런 의미에서 메가아시아 담론 역시 아시아주의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에서 아시아가 차지할 수 있는 위상과 기능의 의미를 재평가하게 하였다. 하지만 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담론의 초점은 “동아시아”에서 점차 “중국-인도(Chindia)”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고, 결국 “중국의 부상”이란 담론으로 집중되었다(Frey and Spakowski, 2016: 211-216). 이 같은 경제력 중심의 초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은 아시아 전체의 관점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다. 물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고비가 있었지만, 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부상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 거대한 아시아적 상호작용의 구조, 즉 메가아시아의 부상은 독립적 개별 국가나 몇몇 강대국의 이름으로 환원될 수 있는 설명의 수준을 넘어섰고, 그 범위의 광활성과 층위의 복잡성 때문에 적절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명한 현실이 되었다. 지구주의와 지역주의의 상호작용으로 엮어진 아시아의 상호작용의 구조화는 메가아시아의 창발(emergence)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창발의 과정은 긴 시간을 통하여 서서히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발전의 추동력에 따른 지구화(globalization)의 영향, 지역주의(regionalism)의 대응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화(regionalization),<sup>19</sup> 간지역주의(inter-regionalism) 및 초지역주의(trans-regionalism)의 활성화 등이 추동한 동학은 탈냉전 이후 임계점(tipping point)을 지나면서 양질 전화의 급속한 변화를 일으켜 메가아시아라는 거대구조가 창발된 것이다(Acri et al., 2019). 이러한 창발(emergence)과 추동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메가아시아 개념은 조작적으로 잘 정의되어야 하고 그 분석적 효용을 고도화하기 위해 메가아시아의 네트워크화된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와 관련하여 ‘메가지역’을 형성하는 동력으로서 지구화 및 지역주의적 전환과 관련하여 칼더(Kent Calder)의 “초대륙(Super-continent)”에 대한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Calder, 2019). 칼더는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초대륙이 21세기 들어 새로운 통합의 과정 속에 들어갔으며, 이 과정이 견실히 진

<sup>19</sup> 지역주의(regionalism)는 지역을 형성하기 위한 국가 중심의 위로부터의 노력을 지칭하며, 지역화(regionalization)는 아래로부터 지역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지역화는 위의 모든 노력의 결과로 지역이 형성되는 과정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척되고 있다고 본다. 유라시아가 지니는 풍부한 자원과 대륙적 연속성, 2008년 지구적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미시적 권력의 무게중심 이동,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의 구조적 변동, 지구적 거버넌스의 분배적 지구주의로의 전이 등과 같은 현상이 유라시아 초대륙의 형성을 설명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칼더는 유라시아 초대륙의 통합 과정을 추동하는 핵심적 동력을 “연결성(connectivity)”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연결의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칼더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신대륙주의의 근간을 유라시아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쟁탈전과 그 운송프로젝트의 경쟁성과 연결성에서 찾으려 했던 그의 전작(Calder, 2012)에서 보여 준 입장을 발전시켜 유라시아 초대륙을 중국의 프로젝트로 환원해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메가아시아는 연결성으로 포착되는 유라시아 초대륙적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개념이다. 특히 메가지역을 구성하는 메소지역(meso-region)의 동학과 소지역주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sup>20</sup> 따라서 메가아시아의 메가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적절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아시아의 변화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시아 전역에서 나타나는 저변의 변화다. 메가아시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적 고리로서의 연결성(connectivity)에 기초한 이동과 흐름의 개념은 중요하다. 연결성을 통해 사람, 물자, 이념이 이동하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벌이게 된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메가아시아의 구성이 초지역적 상호작용의 수준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지역들과 지역 내 소지역들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 간 및 소지역 간 연결이 동시에 진행되는 다층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중층적 지역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강대국 기획에 초점을 맞춘 거대지역에 대한 매핑은 자칫 메가아시아라는 현상을 중국 등과 같은 특정 세력의 기획으로 환원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메가아시아는 탈경제화와 재경제화 등을 내포하는 통경제적이며 초경제적 상호작용의 복잡한 동

<sup>20</sup> 메가지역(mega-region)과 메소지역(meso-region)의 동학에 대한 시론적 연구로는 Pettai (2005)를 참조.

학이 빛은 결과물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주의적 동력에 대한 이해이다. 흔히들 아시아에서 유럽과 같은 지역주의는 불가능하다는 숙명론적 회의주의에 많 이들 동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시아의 지역주의는 유럽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에서의 지역 형성과 관련하여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위에서 발현되는 과정은 미묘하지만 급작스럽기까지 하다. 이 과정에서 역내 강대국의 역할이 많은 주목을 받지만, 그에 못지않게 역내 국가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특히 아세안의 사례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지정학적 중간국들의 연대와 같은 지역 국가들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연구는 아시아 지역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들의 지역형성을 위한 연대 노력과 그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은 아시아적 지역주의와 그 결과로서의 메가아시아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찰 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강대국 전략과 지역형성을 위한 제도적 각축이 가져오는 한계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 일본 등과 같은 해양 중심의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쿼드플러스(Quad+) 전략으로 아시아에서의 해양주도성을 유지해 보려는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정책이나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같은 대륙 중심의 설계와 대립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을 자신의 세력권에 편입시키려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시아의 지역 경제구조에 대한 미-중 전략경쟁의 각축을 대표하는 기구로 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분열적 내지 경쟁적 구조는 메가아시아가 거대지역으로 작동하는 데 일정한 허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주의는 결국 역내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개방된 지역주의로서의 특성을 학습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구도하에서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 국가들은 강대국에 의한 자기편 모으기 게임에 의해 휘둘림을 당하기보다 연대를 통한 중층적 지역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메가아시아적 협력의 틀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강대국의 설계 못지않게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연대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시아 전역을 범위로 진행되고 있는 메가아시아의 동학은 강대국의 지구적 전략과 역내 국가들이 가세하는

지역적 동학에 의하여 그 형(型)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내용은 역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지방과 도시 그리고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게 되는 저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채워질 수밖에 없다.

넷째, 거대동력(mega-trend)의 형성이다. 최근 들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간지역주의(inter-regionalism) 및 초지역주의(trans-regionalism) 협력 및 통합 지향성이 출현하여 그 속도를 더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후변화의 여파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북극항로의 실현 가능성은 간지역주의와 초지역주의를 넘어서는 메가아시아의 형성의 동력으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이다. 닫혔던 대륙이 열리면서 재구축되고 있는 신실크로드와 유라시아 생산·가치사슬의 등장을 추동할 신대륙주의, 전통적 해양 교역네트워크의 질적인 변화를 통한 메가지역적 연결을 추동하는 신해양주의, 그리고 서서히 열리고 있는 북극시대의 도래는 메가아시아 담론이 한 시기의 유행에 그칠 논쟁이 아니라 지구적 트렌드를 담아낼 화두로 자리 잡게 될 높은 가능성을 웅변하고 있다. 신대륙주의와 신해양주의 그리고 북극시대의 도래라는 이 거대한 동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도전 앞에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구화에 대한 일정한 제동력이 계속해서 작동할 것이라는 예상에 비하여 팬데믹 시대에 지역적 수준의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적 수준의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턴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이전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점점 힘을 얻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신대륙주의와 신해양주의를 포괄하는 범아시아주의 내지 거대아시아주의를 자극하면서 메가아시아의 지역성을 더욱 고도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V. 맺음말

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부상과 더불어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 혹은 아시아의 시대 등으로 불리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구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시아성에 대한 질문이 점차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아시아는 19세기 이래 처음으로 세계 경제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적 급성장, 지역 내 통합 증대, 중국과 인도 등 주요국들의 강대국으로의 부상과 글로벌거버넌스 내 영향력 증대 등은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 내지는 아시아의 시대로 부를 충분한 기반을 제공한다. 부상하는 아시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표류하는 지금, 동(북)아시아를 벗어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확장적이고 역동적인 아시아를 규명할 학술적인 노력과 전략적인 접근을 구체화할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현재 아시아는 지역 연대를 꿈꾸는 상상력의 공간 및 세계경제의 활력의 거점이라는 자부심의 공간으로서, 아시아 지역별 그리고 지역 간의 긴밀한 인적·물적 자원의 흐름과 교류를 통해 자기 구성의 과정을 경험해 가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을 국가별, 지역별로 분리하지 않고 비교지역연구의 관점을 견지하되, 하나의 전체로서의 메가지역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아시아의 지도그리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아시아를 국가나 지역 단위의 '부분'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넘어 메가아시아(Mega-Asia), 즉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연구단위로 설정하고 개념적이며 현상적으로 규명해 낼 시각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메가아시아는 현재적/분석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실천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메가아시아 연구는 “부상하는 메가아시아(emerging Mega-Asia)”를 개념화하고 이론화함으로써 그 존재의 인식적 기반을 탐구하는 작업과 함께 이 과정을 가속화하고 아시아인들에 의한 아시아의 공생적 구조를 구현해 나가는 실천적 전략과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메가아시아의 개념에 기초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전략의 설계는 제국(帝國)의 동력이 아니라 간지역주의, 초지역주의, 소지역주의 그리고 중간국 연대와 같은 아시아적 특성을 지닌 탈제국적 ‘아시아주의’를 중심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의 요체는 기존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범아시아적 인식의 기반을 가진 아시아가 지구화와 지역주의의 결과 추동된 동력에 의하여 하나의 거대한 전체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연결되고 구성되어 가고 있는 메가아시아가 바로 새로운 아시아의 미래이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역사적 헤안은 과거를 반추하기보다 역사적 미래 구상을 상

대화하는 역사적 예측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는 코젤렉(R. Koselleck)의 조언이 새롭게 다가온다(Koselleck, 1985: 39-40; 손열, 2015: 54). ‘지역’으로서의 아시아 또는 지역적 상호작용 및 그 결과로 형성되는 실천적이며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아시아를 탐구 할 때, 우리는 “메가지역으로서의 아시아”에 주목해야만 그 변화의 실체와 미래적 의미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의 지역적 상호작용과 집합 및 관계를 국가적·초국가적·지구적 컨텍스트 속에서 재구성하고 고찰해 봄으로써 아시아 지역주의가 추동하고 있는 메가아시아의 미래가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미래지향적 실천의 준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메가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투고일: 2021년 6월 15일 | 심사일: 2021년 7월 16일 | 게재확정일: 2021년 7월 30일

## 참고문헌

- 권오영. 2019.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 세칭출판사.
- 김경동. 2011. “아시아란 무엇인가?: 인식과 정체 의식.” 『아시아리뷰』 1권 1호, 37-58.
- 김명섭. 1997. “서유럽 집단안보체제의 기원: 대서양주의와 범유럽주의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36권 2호, 43-72.
- 김유정. 2019. “‘제국 부활의 꿈,’ 유라프리카: 범유럽(Pan-europe)구상에서부터 EEC 협상까지.” 『문화와 정치』 6권 4호, 113-137.
- 두아라, 프라센짓. 2016. “인류세에서 아시아 연구의 의제.” 『아시아리뷰』 4권 1호, 15-23.
- 모모키시로. 2012.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 손열. 2015. “동아시아의 꿈: 1894년과 2014년 지역질서 건축.” 『아시아리뷰』 4권 2호, 53-72.
- 손정렬 외. 2018. 『네트워크로 바라본 아시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신범식. 2001.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와 아틀란티스주의 사이에서.” 『역사비평』 통권 54호, 76-95.
- 신중훈. 2018. “쿠엔트호베-칼레르기와 간전기 범유럽운동.” 『통합유럽연구』 9권 2호, 57-86.
- 이병한. 2016. 『반전의 시대: 세계사의 전환과 중화세계의 귀환』. 서해문집.

- 임현진. 2016. 『아시아의 부상, 문명의 전환인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장경섭. 2014. “아시아의 아시아화: 이론적·방법론적 함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2014. 1.).
- 장덕준. 2014.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동북아.” 『슬라브학보』 29권 1호, 229-266.
- 조지형 외. 2010. 『지구사의 도전』. 서해문집.
- Abalahin, Andrew. 2011. “‘Sino-Pacifica’: Conceptualizing Greater Southeast Asia as a Sub-Arena of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22(4): 659-691.
- Acharya, Amitav. 2007. “Ideas, Identity, and Institution-building: From the ‘ASEAN Way’ to the ‘Asia-Pacific Way?’” *The Pacific Review* 10(3): 319-346.
- \_\_\_\_\_. 2011. “Asia Is Not One: Regionalism and the Ideas of Asia.” *ISEAS Working Paper: Politics and Society Series* 1, 1-24.
- Acri, Andrea et al., eds. 2019. *Imagining Asia(s): Network, Actors, Sites*. Singapore: ISEAS Publishing.
- ADB(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13. *Connecting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 Agnew, John. 1994. “The Territorial Trap: The Geographical Assump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1): 53-80.
- Bell, Daniel and Chaibong Hahm. 2003. *Confucianism for the Modern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ger, Peter and Michael H. Hsiao. 1988.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N. J.: Transaction Books.
- Brenner, N. 2004. *New State Spaces: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alder, Kent E. 2012. *The New Continentalism: Energy and Twenty-First-Century Eurasian Geopolitics*.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2019. *Super Continent: The Logic of Eurasian Integr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Castells, M. 1996. *The Informational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 1: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lackwell.
- Chen, Kuan-Hsing. 2010. *Asia as Method: Toward Deimperializatio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Chen, Xiangming. 2005. *As Borders Bend: Transnational Spaces on the Pacific Rim*. New York: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Inc.
- Chernyshev, Maxim V. 2017. "The Concept of Atlanticism in the Perspective: Historical Trends and Modern Interpretations." *ВЕСТНИК УДМУРТ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ЦИОЛОГИЯ. ПОЛИТОЛОГ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2, 202-210.
- Chow, Paula K. and Gregory C. Chow. 1997. *Asia in the 21<sup>st</sup> Century: Economic, Socio-Political, Diplomatic Issues*. Singapore, London: World Scientific.
- Chung, Jae Ho. 2016. "The Rise of China and East Asia: A New Regional Order on the Horizon?" *Chinese Political Science Review* 1, 47-59.
- Cockerham, B. Geoffrey. 2010. "Regional Integration in ASEAN: Institutional Design and the ASEAN Way." *East Asia* 27, 165-185.
- Cooley, Alexander. 2012. *Great Game, Local Rules: The New Great Power Contest in Central A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ulcasi, Karen. 2010. "Constructing and Naturalizing the Middle East." *Geographical Review* 100(4), 583-597.
- Delanty, G. 1995. *Inventing Europe*. Palgrave Macmillan.
- Dryer, Charles R. 1915. "Natural Economic Region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5, 121-125.
- Duara, Prasenjit. 2002. "The Discourse of Civilization and Pan-Asianism." In Roy Starrs, ed. 2002. *Nations under Siege: Globalization and Nationalism in A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_\_\_\_\_. 2010. "Asia Redux: Conceptualizing a Region for Our Time." *Journal of Asian Studies* 68(4), 963-983.
- EIR Special Report. 2014. *The New Silk Road Becomes The World Land-Bridge*. EIR News Service Inc.
- Eisenstadt, Shmuel N. 1998. *Comparative Civilizations and Multiple Modernities*. 2 Vols. Leiden: Brill.
- Elliot, Michael. 2009. "Commentary, Into the Unknown." *Times* (August 10).
- Fairbank, John King, ed.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Frank, Andre G. 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rey, Marc and Nicola Spakowski, eds. 2016. *Asianisms: Regionalist Interaction and Asian Integration*. Singapore: Nus Press.
- Friere, Maria Raquel and Roger E. Kanet, eds. 2010. *Key Players and Regional Dynamics in Eurasia: The Return of the 'Great Game'*. Palgrave Macmillan.
- Fukuyama, Francis. 1988. "Asian Values and Asian Crisis." *Commentary* (February).
- Hanson, Peo and Stefan Jonsson. 2016. "Eurafrica: The Untold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and Colonialism." *The European Legacy* 22-1, 1-3.
- Hardy, Alfredo T. 2020. *China versus The US: Who will Prevail?* World Scientific.
- Ikenberry, G. John. 2008.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Can the Liberal System Survive?," *Foreign Affairs* 87(1), 23-37.
- Jessop, Bob, Neil Brenner, and Martin Jones.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 389-401.
- Kang, David C. 2010. *East Asia before the West: Five Centuries of Trade and Tribu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2020. "International Order in Historical East Asia: Tribute and Hierarchy Beyond Sinocentrism and Eurocentr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74, 65-93.
- Khanna, Parag. 2019. *The Future is Asian: Commerce, Conflict, and Culture in the 21<sup>st</sup> Century*. New York: Simon & Schuster.
- Korhinen, Pekka. 2002. "Changing Definitions of Asia." *Asia Europe Journal* 10(2), 99-112.
- Koselleck, Reinhart. 1985. *Future Past: On the Semantics of Historical Time*. Cambridge: The MIT Press.
- Langenhove, Luk Van. 2011. *Building Regions: The Regionalization of World Order*. Ashgate.
- Laruelle, Marlene, ed. 2008. *Russian Eurasianism: An Ideology of Empire*. Washington D.C.: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eberman, Victor. 2003. *Strange Parallels: Southeast Asia in Global Context, c. 800-1830. Volume 1: Integration on the Main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Strange Parallels: Southeast Asia in Global Context, c. 800-1830. Volume 2: Mainland Mirrors: Europe, Japan, China, South Asia, and the*

- Isla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hbubani, Kishore. 2008. *The New Asian Hemisphere: The Irresistible Shift of Global Power to the East*. New York: Public Affairs.
- Milner, Anthony and Deborah Johnson. 1997. "The Idea of Asia." In John Ingelson, ed. *Regionalism, Subregionalism and APEC*. Melbourne: Monash Asia Institute.
- Muller, Karis. 2000. "The Birth and Death of Eurafica." *International Journal of Francophone Studies* 3(1), 4-17.
- \_\_\_\_\_. 2016. "Eurafica: The Untold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and Colonialism." *The European Legacy* 22(1), 1-3.
- Nandy, Ashis. 1998. "A New Cosmopolitanism: Toward a Dialogue of Asian Civilizations." In Chen Kuan-Hsing, ed. *Trajectories: Inter-Asia Cultural Studies*. New York: Routledge.
- Paasi, Anssi, John Harrison, and Martin Jones, eds. 2018. *Handbook on the Geographies of Regions and Territories*.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 Park, Joung-ho, Seok Hwan Kim, Boogyun Kang, Pavel A. Minakir, Artem G. Isaev, Anna B. Bardal, and Denis V. Suslov. 2020.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in 20 Years of the Putin Era: Seeking New Directions for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World Economy Brief*, 20-35.
- Park, Saeyoung. 2017. "Long Live the Tributary System! The Future of Studying East Asian Foreign Relation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77(1), 1-20.
- Perdue, Peter C. 2015. "The Tenacious Tributary System."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4(96), 1002-1014.
- Pettai, Vello. 2005. "The Study of Meso- and Mega-Area Dynamics: Methodolog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In Kimitaka Matsuzato, ed. *Emerging Meso-Areas in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Histories Revived or Improvised?* Sapporo: Slavic Research Center, Hokkaido University.
- Saaler, Sven and Christopher W. A. Szpilman. 2011. "The Emergence of Pan-Asianism as an Idea of Asian Identity and Solidarity, 1850-2008." In Saaler and Szpilman, eds. *Pan-Asianism: A Documentary History. Vol. 1: 1850-1920*.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 Inc.
- Said, Edward.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Scalapino, Robert A. 1995. "Natural Economic Territories in East Asia: Present Trends and Future Prospect." In Korean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ed. *Economic Cooperation and Challenges in the Pacific*. Washington DC: KEI.
- Sergeev, Evgeny. 2013. *The Great Game 1856-1907*. Woodrow Wilson Center Press.
- Singh, Upinder and Paul Pandya Dhar, eds. 2014. *Asian Encounters: Exploring Connected Histories*.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Stolte, Caroline and Harald Fischer-Tine. 2012. "Imagining Asia in India: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ca 1905-1940)."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54(1), 65-92.
- Storms, M., M. Cams, I. J. Demhardt, and F. Ormeling, eds. 2019. *Mapping Asia: Cartographic Encounters Between East and West*. Springer.
- Subrahmanyam, Sanjay. 2016. "One Asia, or Many? Reflections from Connected History." *Modern Asian History* 50(1), 5-43.
- Sum, Nagai-Ling. 2018. "The Production of Trans-regional Scale: China's 'One Belt One Road' Imaginary." In Anssi Paasi, John Harrison, and Martin Jones, eds. 2018. *Handbook on the Geographies of Regions and Territories*, 428-443.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 Toro Hardy, Alfredo. 2020. *China versus the US: Who Will Prevail?*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 Wilson, Kevin and Jan van der Dussen, ed. 1995. *The History of the Idea of Europe*. Routledge.
- Yeo, Andrew. 2019. *Asia's Regional Architecture: Alliances and Institutions in the Pacific Centu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Yukawa Taku. 2018. "The ASEAN Way as a Symbol: An Analysis of Discourses on the ASEAN Norms." *The Pacific Review* 31(3), 298-314.

## Abstract

## Emerging Mega-Asia: History and Concept

Beom Shik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is emerging again as the central axis of world history beyond the passivity objectified during the imperialism era and the existence restricted by camp logic during the Cold War era. Efforts to redefine Asia beyond the names and spatial divisions given by others as European powers in the past are being widely attempted in Asia. The present and future of a new Asia can be understood as 'Mega-Asia.' In order to capture and understand Mega-Asia,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rocess, in which 'new continentalism' and 'new oceanicism' as the driving forces for building Asia as a mega-region, created by the dynamics of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regionalism, are connecting the regions in Asia. Thus, the concept of emerging 'Mega-Asia' can be an analytical tool that adequately captures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of Asia as a networked whole region. We need to develop the concept into a strategic concept that will embrace the future of Asia, that Asians themselves are subjectively constructing beyond the limit from the strategic rivalry of great powers such as the US and China.

**Keywords** | Asia, Mega-Asia, mega-region, networked region, regionalization, regionalism